

Classical Economic Theory and Keynesian Theory

<개괄>

1. Classical Economic Theory

- Adam Smith 의 [Wealth of Nations]
- Competition, self-interest, and the invisible hand
- Say's law(J. B. Say): "Supply creates its own demand"
 - 만들면 살 것입니다.
 - 사람들이 안 사고 저축을 할 수 있죠 → 안 팔린 것은 재고에 넣고 → 재고가 넘치면 생산자가 가격을 낮추겠죠. → 이러면 또 팔릴 겁니다.
 - 즉, Price Adjustment 를 통해서 excess production 이 없을 겁니다.
- Just wait, it will fix itself!
- Supply 가 중요합니다.
- 그리고 Supply 를 결정짓는 것은 Resource 와 Technology 입니다.

그런데... Great Depression 에서...

- 생산요소가 그대로인데 (Resource 와 Technology 그대로) Output 이 감소
- 왜지..?????? → Classical 로 설명이 안 됨.

2. Keynesian Theory

- John Maynard Keynes: British economist, [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, Interest, and Money]
- Great Depression 때 Classical 을 반박하기 위해 등장
- Price and wages were downwardly inflexible (Sticky)
 -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기 쉽지 않음.
- Price adjustment(Classical)가 어떤 때는 작동하지 않음.
 - 즉, Say's Law 가 어떤 경우에는 사실이 아님. (유효수요가 뒷받침 되어야 함)

- Government Intervention 중요
 - o New Deal 정책.
 - o Demand management Policies

<AS Curve 에서의 다툼>

1. **Long-run AS(LRAS) → vertical** (classical view that **wages and prices are flexible**)
 - 장기에는 결국 wage 와 price 가 신축적이라고 보는 것!
 - 장기에는 언제나 full employment 라고 보는 것!
 - o Full employment = potential GDP
 - depends on the availability of labor and capital and the state of technology
 - **장기에는 물가와 상관 없이 완전 고용 생산량으로만 생산 할 것이다.**
 - o Price inc. → wage inc. → cost of production inc. → no incentive to produce more. (생산량 변화 없음.)
 - 왜 wage 가 올라가는가?: 고전학파 시각에서는 노동자들이 물가 상승을 바로 눈치 챌. → 즉, 내 실질임금 (real income)이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여 곧바로 임금 상승 압력 → 명목임금 (nominal income)의 상승을 이루어냄.
 - o Price dec. → Revenue dec. → wage dec. → cost of production dec. → no change in profits and no incentive to lower production. (생산량 변화 없음.)
 - 왜 wage 가 떨어지는가?: 물가 하락 → 실질 임금 상승 →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짐 → 고용 감소 → 실업 증가 → 임금 인하 압력 → 명목임금 감소
 - **즉, AD 의 변화는 물가만 변화시킴. (생산량 변화 없음. 완전 고용 상태 유지)**
2. 근데 **Depression** 때는... (Keynesian)
 - 기업은 large inventories and excess capacity 있을 것임.
 - o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도 막 더 팔고 싶을 거임.
 - 노동자와 다른 생산요소도 충분히 많음

- 즉, 가격/임금 상승 압력 없이도 생산량 늘릴 수 있음.
- 그래서 **horizontal** AS curve 도출
- 즉, Depression 때는 AD의 변화가 real GDP에 변화를 준다. (물가는 주지 않음)
 - 왜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?: 지금 가격으로도 더 팔 수 있고, 지금 임금으로도 일할 수 있음. (기업들이 팔고 남은 것 넘쳐남, 실업자들도 넘쳐남)

3. **Intermediate** range (가장 흔함)

- No excessive inventories, and firms are closer to their productive capacities
- Expansions in output 만들기 위한 상황 (AD의 증가)
 - Hire additional inputs and 공장 빨리 돌려 → price inc. → wages and other input prices 천천히 올라가 (long-term contracts) → profit per unit of output inc. → 기업에게 고용 늘려서 더 생산할 유인 생김.
 - 즉, AD의 변화가 price level과 RGDP 둘 다 변화를 가져다 줌.

4. 기타

- Short-run misperceptions:
 - 기업이 자기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 확인 → 근데 다른 것들도 다 같이 올라가는 것 모름 → 기업이 자기 것이 잘 팔린다고 생각해서 producing more
- Full Employment를 넘어서는 순간
 - Full employment에 도달 → 현재 임금 수준에서 노동자 데려오기 힘들 → increase wages (in order to hire more inputs and increase output) → increase in price level → 근데 physical limit (공장 돌리기 최대, 24시간 근무) 도달하면 SRAS 우상향 멈춤 (Output은 그대로) → vertical line으로 (AD가 Price Level만 증가시킴)
- AS가 우상향 그래프로 그려져 있다면
 - 물가가 변하면 supply가 단기에서 변할 수 있다는 말.

